

조이·의존 줄이고 '분산 공격'…페퍼스, 반등 해법 찾았다



현대건설에 3-1 승…리그 6위 유지
조이·시마무라·하혜진 등 고른 득점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4라운드 마지막 경기 를 승리로 장식해 '울스타 브레이크'를 기분 좋게 맞이한다.

페퍼스는 지난 21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4라운드 최종전에서 현대건설을 세트스코어 3-1(23-25 25-15 25-16 25-19)로 꺾었다.

이로써 페퍼스는 승점 3점을 챙겨 9승 15패(승점 27점)로 4라운드 리그 6위를 유지했다.

승리의 비결은 직전 도로공사전에서 확인했던 '분산 공격'의 정교함이었다.

이날 조이(31점)와 시마무라(16점)가 47점을 합작하며 중심을 잡았고, 하혜진(8점)·박정아(7점)·박은서(6점)·이한비(5점)·이원정(3점)까지 고르게 득점에 기여해 승리를 견인했다.

리시브가 버티는 구간에서 세터가 중앙과 사이드를 고르게 살렸고, 국내진이 '한 번 더' 버티며 추격 흐름을 끌고까지 이어갔다.

1세트, 초반부터 팽팽하게 맞섰지만 중반부터 리시브가 흔들리며 공격 선택지가 좁아졌다. 23-23 막판까지 동점으로 추격했으나, 박정아의 공격이 현대건설 양효진의 블로킹에 걸렸다.

현대건설은 세트포인트에 먼저 도달한 뒤 승부처에서, 조이의 범실이 나오며 23-25 세트를 내줬다.

다만, 주포 조이는 1세트에서 홀로 12득점을 올리고, 공격 성공률 57.89%를 기록하며 공격을 이끌었다.

2세트, 페퍼스는 반격에 나섰다.

세트 중반 세터·중앙 호흡이 살아나며 속공·시간차 공격이 통했고, 조이에게 쏠리던 부담이 자연스럽게 분산됐다.

7-5 상황에서 조이와 박은서의 득점에 하혜진 시간차 공격 성공까지 더해 순식간에 19-10까지 벌어지면서 리드를 잡았고, 블로킹·수비가 불으면서 연속 득점으로 크게 달아났다. 결국 페퍼스는 압도적 점수차로 25-15, 2세트를 가져왔다.

3세트 역시, 초반 리드를 잡은 뒤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흐름을 이어갔다.

서브로 상대 리시브를 흔들어 찬스를 만들고, 국내진이 득점에 기여하며 흐름을 길게 가져갔다.

4세트는 중반까지 접전이 이어졌지만, 후반 박정아의 클러치와 조이의 마무리가 맞물리며 25-19로 승기를 굳혔다.

이로써 올 시즌 상위권인 현대건설을 상대로 3승

1회 강세를 이어간 점도 자신감을 기웠다.

특히 박정아는 '클러치 박'을 떠올리게 하는 플레이를 여러 차례 보이며 존재감을 키웠다.

박정아의 상승세는 상대 높이에 밀릴 수 있는 매치업에서도 타점 싸움과 선택을 바꾸며 '결정적 1점'을 만들어냈다.

세터와의 호흡이 안정될수록 조이의 후위 의존도도 낮아지고, 중앙 속공·시간차가 살아나는 그림이 뚜렷해졌다는 점은 페퍼스가 울스타 휴식기를 앞두고 얻은 가장 큰 수확이다.

다만 '불 배구' 순위 경쟁은 여전히 쉽지 않다.

여자부 포스트시즌은 정규리그 1위가 웹피언결정전에 직행하고, 2·3위가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현재 페퍼스는 3위권과 승점 격차가 적지 않아 남은 일정에서 꾸준한 승점을 쌓아야 한다.

현실적인 과제는 순위 계산보다 경기력의 '재현'이다. 조이·시마무라의 화려 위에 국내진이 꾸준히 득점을 보태는 구조가 정착될수록 페퍼스의 후반기는 더 '승리 가능한 경기'로 바뀐다.

울스타전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페퍼스는 이날 경기를 끝으로 약 2주간의 울스타 휴식기에 들어간다.

휴식기 이후 남은 12경기는 반등의 기준을 끌어 올릴 실전 무대가 될 전망이다.

한편, 페퍼스는 5라운드 첫 경기로 2월 1일 오후 4시 원정에서 흥국생명과 맞붙는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홈 팬들 앞에서 승점 사냥



내일 부산시설공단과 경기

광주도시공사가 광주 팬들 앞에서 시즌 첫 홈 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도시공사는 24일 오후 2시 광주 빛고체육관에

서 부산시설공단과 신한 SOL Bank 2025-2026 핸드볼 H리그 여자부 1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원정 3경기에서 1승 2패를 기록, 6위에 머물고 있는 도시공사는 홈에서 '승점 사냥'에 나선다.

앞서 도시공사는 경기 초반 선방과 속공으로 좋은 흐름을 유지하다가 경기가 진행될수록 실책이 쌓이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

개막전 SK슈가글라이더즈전(24-32)에서는 중앙 공략 과정에서 던오버가 잇따르며 속공을 허용했고, 전반에 벌어진 격차(9-15)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앞선 삼척시청전(21-27)에서도 슛 미스와 실책이 겹치며 전반을 크게 뒤졌고(9-16), 후반 연지현이 피벗 플레이로 3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7m 드로 실패와 승부처 실책이 겹치며 흐름이 끊겼다.

두 번째 경기였던 대구시청전(27-21)에서는

뒷심 싸움에서 승자가 됐다.

골키퍼 이민지의 선방으로 초반 리듬을 잡은 도시공사는 속공으로 주도권을 가져왔다. 19-18, 1점 차로 키기던 상황에서는 7m 드로를 막아내며 상대의 추격 흐름을 끊었다. 이어 연속 속공으로 달아나 승리를 굳혔다.

이번 부산시설공단전은 '실책 관리'가 승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삼척전에서 도시공사는 동점 기회를 여러 차례 만들고도 속공을 허용하며 추격에 실패했다.

'골키퍼 선방 이후의 속공 전개 플레이'로 초반 싸움을 벌이고, 약점인 초반 실책·트랜지션 수비·결정력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경기는 광주 팬들과 함께하는 시즌 첫 홈 무대다. 도시공사가 승점 사냥에 성공해 홈 팬들에게 기쁨을 안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김민선·이나현, 8년 만의 한국 빙속 '금맥' 잇는다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한국 선수단 금 3개 이상 목표
여 500m·1000m서 메달 기대

스피드 스케이팅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14개의 금메달이 걸린 '금빛 각축장'이다.

프리스타일 스키(금메달 15개)에 이어 두 번째로 금메달이 많아 한국 선수단 역시 쇼트트랙에 이어 '금빛 낭보'를 전해줄 유력한 종목으로 손꼽고 있다.

한국 선수단이 이번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대회에서 기대하는 금메달 목표는 '3개 이상'이다.

이번 금메달 목표에서 '탈(脫) 쇼트트랙'의 선두 주자는 단연 스피드 스케이팅이다.

한국은 2010년 밴쿠버 대회 때 모태범(은퇴) 이 남자 500m에서 깜짝 우승하면서 '동계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역대 1호' 금메달을 품었다.

모태범의 금빛 소식 이를 뒤 이상화가 여자 500m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더니 '장거리 전문' 이승훈이 남자 10000m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며 한국은 단숨에 스피드 스케이팅 강국으로 떠올랐다. 2014년 소치 대회에선 이상화가 여자 500m 2연패를 달성했고, 2018년 평창 대회에선 이승훈이 남자 매스스타트 금메달을 차지하며 금맥을 이었다.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은 8년 만의 '금빛 질주' 재현을 노린다.

기대받는 대표 주자는 세 번째 올림픽 무대에 도전하는 김민선(26·의정부시청)과 생애 첫 올림픽을 앞둔 이나현(20·한국체대)이다. 둘 다 단거리 종목인 여자 500m와 1000m에서 시상대를 꿈꾼다.

김민선은 '포스트 이상화'의 핵심 주자로 2022-2023 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시리즈 여자 500m 랭킹 1위, 1000m 랭킹 4위에 오르

면서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무대를 빛낼 스타로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다.

이번 올림픽을 내다보며 훈련 방식에 변화를 추구한 김민선은 컨디션 조절에 애를 먹으며 이후 월드컵 시리즈에서 다소 고전했지만 김민선은 올림픽 시즌을 맞아 성적을 끌어올리더니 지난해 12월 월드컵 4차 대회 500m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자신감을 되찾았다.

2025 하계인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전 종목 메달(100m 금, 500m 은·1000m 동, 팀스피드트리플 금)을 따내며 '깜짝 스타'로 발돋움한 이나현도 유력한 메달 후보로 손꼽힌다.

이나현은 이에 앞서 2024년 1월 2023-2024 ISU 월드컵 5차 대회 여자 500m에서 37초43의 주니어 세계기록을 작성하며 '될성부른 뛰임'으로 인정받았다.

성장을 거듭하는 이나현은 2025-2026 ISU 월드컵 1~4차 대회를 통하여 여자 500m 랭킹 포인트 4위를 기록, 김민선(11위)을 앞서며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대회의 유력한 '메달 후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춘천 호반체육관…티켓 예매 1분 만에 매진

강원도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리는 '별들의 잔치' 프로배구 울스타전이 어느덧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진에어 2025-2026 V-리그 울스타전은 팬 투표(70%)와 선수단·미디어 투표(각 15%)를 합산해 선발된 선수들이 K-스타와 V-스타로 나뉘어 맞붙는 축제다.

올해는 예년보다 높아진 티켓 가격에도 예매 시작 1분 만에 매진될 만큼 열기다 뜨겁다.

AI페퍼스에서는 두 명의 선수가 울스타 무대를 밟는다.

베테랑 '클러치 박' 박정아(OH)가 V-스타에 합류해 통산 12번째 출전을 앞두고 있다.

아시아권에서 시마무라(MB)는 전문위원회 추천으로 명단에 합류하면서 페퍼스의 '두 별'이 춘천 무대를 밟히게 됐다.

다만 주장 고예림(OH)이 손가락 부상으로 하차하면서, 정관장 박혜민이 대체 선수로 합류했다.

본 경기는 오후 3시, 사전행사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서브킹·퀸 콘테스트'와 '베스트 리비

콘테스트' 등 이벤트가 팬들을 맞는다. 역대 여자부 스파이크 서브 콘테스트 최고 기록은 13-14시즌 카리나(IBK기업은행)의 시속 100km로, 시마무라를 포함한 참가자들이 기록 경신에 도전한다.

이번 울스타전에 나서는 선수들 가운데 남녀부를 통틀어 가장 많이 올스타 무대를 밟은 선수는 17회 출전에 빛나는 양효진(현대건설)이다.

양효진은 08-09시즌부터 도쿄 올림픽 예선에 따른 미개최 시즌(19-20)을 제외하고 17시즌 연속 올스타에 선발됐다.

경기 끝난 뒤에는 기자단 현장 투표를 통해 '제리미니상'과 'MVP' 수상자가 결정된다.

팬들과 함께 추억을 쌓는 무대도 마련된다. 이번 올스타 테마곡 '푸른 호수 춘천 하늘 아래'의 안무 공모전에 선정된 팬 3팀이 원하는 선수들과 함께 올스타 무대에서 안무를 선보인다.

'MVP 맞히기', '출신 춤왕 퀴즈' 등 경기장 이벤트와 야외 부스 행사도 펼쳐진다. 팬들을 위해 타이틀 스폰서 진에어가 항공권 200매를 지원한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광주예술의전당 전시지원 공모전시

미음완보 : 민은주 개인전

일시 : 2026-01-23(금)~2026-02-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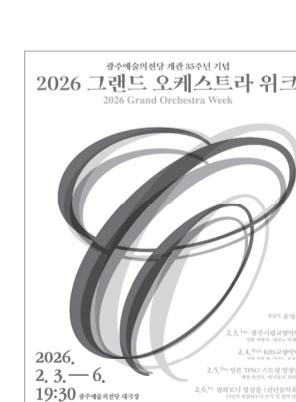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문의 062)613-8235



광주예술의전당 개관 35주년 기념
2026 그랜드 오케스트라 워크

일시 : 2026-02-03(화)~2026-02-06(금) 19:30